

20250706 (로마서 #22)

율법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7:7-12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오늘 저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심도(心度) 깊은 정의(定意)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본질적인 정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사실적으로 real 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인간의 영적, 심리적 통찰의 결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1.율법: 6번 등장. 2.계명:5번 등장. 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계명이기도 합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서는 ‘토라’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통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모세의 율법’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율법을 말할 때는, 헬라어 nomos(νόμος)라는 말이 주로 사용됩니다.

노모스는 법(Law), ‘규칙’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기서 많은 영어단어들이 파생됩니다. 예를 들자면,

autonomy	auto(스스로) + nomos(법)	자치, 자율, 자기 규범
economy	oikos(집) + nomos(관리, 법)	경제, 가정(사회) 관리
astronomy	astron(별) + nomos(법칙)	천문학, 별의 법칙 연구

이 법, 법칙들을 영어에선, 단순히 Law라고 하고, 한글성경에선 율법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번 강조. 거꾸로 읽으면 법률(法律)이 되는 데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聖經)에서 율법하면, ‘신앙법’,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이 법이, 구약의 출애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에, 모세의 율법이라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경우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학교의 순기능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창의성이 억압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역기능입니다.

학교(學校)는 떠난 친구를 사귀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학요에는, 왕따, 집단 따돌림 등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I. 율법의 순기능(順機能)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7절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6절을 받아, 이어서 말합니다.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율법이 죄냐는 말은

“호(the) 노무스 하마르디아?”라고 되어있는데, 이 hamartia는 죄라는 의미도 있지만 (Thayer's Greek Lexicon에 의하면) ‘잘못된 일’(that which is done wrong)리한 의미도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고 지난시간의 7:6절에서 말한것처럼,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살지 아니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렇다할 자일지라도, <율법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율법의 역할(役割)**에 대해 7절 후반부에 말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말하여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한계와 인간의 죄에 대한 무지함을 전제(前提)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대부분의 인간은 스스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담에게 무엇이 죄(罪)였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금지령(禁止令)이었습니다. 모세시대에, 출애굽후 광야의 삶을 시작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 탄생하게 됨에 있어서 필요한, 영적,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 가지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백성에게 <노모스:법>을 준 것의 목적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법(法)이 없는 사회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무질서(無秩序)와 혼란(混亂), 힘만이 작동하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비참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광야에서의 무질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이나 희랍, 로마의 신들과는 격(格)이 다른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단지 통치체제를 이루어 백성들을 관리하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높은 이상에 바탕을 둔 법(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견지(堅持)**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까다로운 남편’처럼만 인식해도 안 됩니다.

율법을,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직접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고 있었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 되었을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온 후(後)였습니다.

“26. 옛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십계명의 5,6,7,8,9,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거(위증) 이런것들은 공동체를 해치는 것들입니다.

우리중 어떤 사람도, 자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녀는 이기적인 존재이기도합니다. 그러니 가르쳐야 합니다. 신약에선 부모의 의무도 이야기합니다. 보호와 양육 훈련의 덕목도 추가합니다.

우리중 아무도 살인당하고 싶지않습니다. 내 물건을 도적질 당하고 싶지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증을 해서, 내가 곤경에 처하고 값지기 범인(犯人)으로 둔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바울이 율법의 한 예로 들은 것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 17절을 말합니다.

원문에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所有)를 탐내지 말라. 집, 사람, 그들의 소유를 탐내지말라는 것입니다. 집도 소유이니 더 요약하면, <사람>과 <사람의 소유물들>을 탐내지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탐심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알수 있었겠느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내가 먹어야 하겠다는 탐심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것처럼(창3: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3대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늘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요일 2:15-17) 누가 알려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탐심은 위에서 말한 다섯가지, 부모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거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조절을 하면 우리의 삶에 훨씬 자유함과 기쁨, 행복한 마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12절말씀으로 봅시다.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게 율법의 중간 정의입니다. **이젠 율법의 역기능을 생각 해봅시다.**

II. 율법의 역기능(逆機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 묘(妙)한 책입니다. 특히 신약성서 바울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심리학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8-11절의 말씀은 일종의 범죄심리학을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펴볼까요?

이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8절“그러나”입니다.

7절은 율법의 순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문제는 이 율법의 반작용, 역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8절-11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8. 그러나, **죄(罪)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貪心)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罪)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 8절과 11절은 대구(對句)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가지 표현들을 봅시다.

1. “죄가” 라는 표현입니다. 8절/11절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니 죄는, 율법을 어긴 사람의 상태를 규정한 것인데, 마치 죄라는 것이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처럼 묘사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인화(擬人化)라고 합니다.

죄가 생명력이 있는 바이러스처럼 묘사된 것입니다. 이 죄에 마귀사탄이 대입된 것입니다. 죄(마귀사탄)이 내안에 역사해서 내거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노무스, 즉,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사탄으로 대표되는 뱀이 등장합니다.

율법을 받게 되면, 바로 마귀사탄이 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켓이 생긴 겁니다.

2. “기회를 타서” 라는 말입니다.

‘죄가’ 라는 말과 같이 나옵니다. 8,11절에 두 번 나옵니다.

율법의 역기능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가 내속에서 기회를 엿본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될까요?

마귀사탄의 존재 때문입니다. 마(魔)가 낀 것입니다.

그는 미혹(迷惑)의 영입니다(요한1서 4:6)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8)라고 한 것처럼,

마귀사탄이, 아담이 없는 시간에 하와를 찾아와, (창3:1-5)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회유(懷柔)한 것처럼,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3.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貪心)을 이루었나니

이것, 묘한 말씀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비(是非)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사탄이 본 것은, 하와와 아담속에 있는 탐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탐심 중 최고의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고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탐심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교두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는 것의 위험성(危險性)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그때 내안에 있는 죄의 성질이 오픈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면세계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는데, 내안의 그것과 반대되는 불결함이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표리부동(表裏不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에서는 경건(敬虔)이고 뒤에서는 부정(不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리적(心理的), 영적(靈的)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 말입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헨리 지킬(Henry Jekyll)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의 본능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실험 끝에 인격을 분리해서, 육신으로 드러내는 화학약물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지킬은, 자신이 만들어낸 약물을 통해, 지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인격인 에드워드 하이드(Edward Hyde)를 지킬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냄과 동시에, 약효가 유지되는 동안 하이드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지킬은 약을 통해 하이드로 변신한 후, 평상시에 지킬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탈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은 분리되었지만, 결국 동일인물이라 주도하는 인격이 다를 뿐, 기억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입장이었기 때문. 실험의 성공에 고무되어 지킬 박사는 더욱 많은 약물을 만들어 마셔서 계속해서 하이드로 변신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면의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이드의 일탈은 소소한 경범죄 수준에서 점점 도를 넘어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이드에서 돌아온 지킬은, 본인이 저질러버린 살인을 자각하고, 더 이상의 변신을 자제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지나친 약물의 남용으로, 지킬의 내면은 이미 선과 악의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내면의 악인 하이드가, 본래 인격인 지킬보다 더 강해진 탓에, 약을 먹지 않아도 본인이 통제할 새도 없이, 저절로 하이드로 변신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 지킬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약을 마셔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 지킬은 두번 다시 지킬 자신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하이드로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이자, **마지막 약물의 힘으로 지킬의 참회록을 써내고, 완전히 하이드로 변해버린 후,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자결한다는 소설입니다.** <https://namu.wiki>

지킬박사와 하이드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1986년 출간된 단편 소설로, 인간의 이중성을 풍자하고 비판한 대표적인 작품이자, 이중인격을 표현한 매체들의 선구자격인 소설입니다. 오늘날쯤의 후반부 율법의 역기능은 이중성의 입장에서 지킬박사의 고뇌와 같은 부분이 있다하겠습니다. 선과 악의 두 부분이 내 몸안에 있다는 것, 악을 행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점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이중성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받은 자들의 고뇌가 여기에 있다면, 참 괴로울 것입니다.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의역하면, <전엔 죄를 지어도 사는 것 같고 즐거웠는데, 이제 계명을 배우고 깨달은 후에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저도 재미가 없고 살맛이 안 난다>같은 것이 아닐까요?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貪心)을 이루었나니...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마귀사탄이 사기(詐欺)를 쳤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기를 친것입니다. 마귀사탄의 사기는 계명을 어기는 자가 경험하게될 정확한 언급을 감언이설(甘言利說)로 속인 것입니다.

마귀사탄은 하나님의 경고(警告)를 무시할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 부당한 창조주(創造主)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모순(矛盾)이 많은 분처럼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더 행복(幸福)인 것처럼 자기가 먹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선악을 아는 것, 죄를 경험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유혹(誘惑)합니다. “죄도 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지.. 너도 하나님될 수 있어....”

제가 보기에 물론교가 저지르고 있는 최악의 죄는,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승격(昇格)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최초로 다른 행성에서 인간(人間)이었는데 스스로 정화(淨化)되고 승격(昇格)되어서 신(神)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하

나눔과 예수님을 따라 신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未來) 라고 말합니다. 이걸 창세기 3장의 복사판(複寫版)입니다. 이걸 타락(墮落)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사도는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로 보건대**” ?? / 이게 뭘 똥판지같은 말 인지요?

이게 뭘 말인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이 휘몰아치고, 더 죄인이 되는 이 혼돈의 거대한 소용돌이속에서 사는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건대 ..인가요?

논리의 결론이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을 말하자는 것인지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들이라고 하는 말일는지요.

율법의 역기능이 있지만 그것이 율법의 순기능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이 역기능조차 하나님의 설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율법안에 담겨진 신비한 기능의 확대를 의미하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To be continue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의 교훈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말씀에서 율법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를 얽매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율법이야말로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로 이 선한 율법이 우리의 정욕과 마귀의 선동에 의해 훼손될지라도, 그것이 결코 율법의 거룩함과 선함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통과하는 의식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 성화에 이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인 이 nomos(νόμος)를 귀히 여깁시다.

시편 119편에서 히브리어 "토라"(תּוֹרָה), 즉 율법에 해당하는 단어, 25회입니다.

1-2.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4. 나로 하여금 주의 **율법**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92.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97.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니이다

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65.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기도합시다 : 우리에게 율법(律法)을 주심 감사합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 힘들어도, 괴로워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 율법이 양날의 검처럼 때로 우리를 찔러도, 좌절케 해도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잘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